

2024 안산 청소년극단 <고등어>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이상한 쉼터의 도망자

대본집

이상한
쉼터의
도망자

시놉시스

‘제발 지금 이 순간에서 도망치고 싶어!’

다운이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순간.

눈앞에 웬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난다.

동화 속 바로 그 토끼처럼 모자를 쓰고 회중시계를 들고 있는.

그런데... 이 토끼, 어쩐지 그 토끼와는 다르다?

“202X년 8월 30일 오전 11시 45분 33초 59의 도망자군요. 좋아요... 흐아아암.”

나른하게 감긴 눈동자와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고,

손에는 장부처럼 끄적이는 노트를 든 토끼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이상한 쉼터>.

저마다의 사연으로 도망쳐온 이들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 머무르며 직면할 용기를 되찾는 곳.

다운은 누구도 도망자를 탓하지 않는 쉼터에서 잃어버린 ‘여유’를 되찾으며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영영 쉼터에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갈등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무르면 커다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들 우리가 나약하고 이상하다고만 하지, 아무도 왜 도망치고 싶은지는 물어보지 않잖아.”

“이곳으로 도망쳐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런 나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대본집

이상한 침터의 도망자

- 2024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정기공연 -

作 송현진

등장인물

다운	16세.
토끼	나이 미상. '이상한 침터'의 도우미
온주	17세.
서진	15세.
도원	19세.
현조	18세.
강	침터의 여유들
건	침터의 여유들
희	침터의 여유들

무대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폭신하고 부드러운 쿠션, 천 등의 소재로 꾸며진 가변적 무대.
배우들이 뒤집어 쓰거나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소재면 좋겠다.
배우가 숨거나 소품을 감출 수 있는 공간.
걸터 앉고 일어설 수 있는 소파나 카우치 혹은 빈백.

때

'침터'는 가상의 공간이므로, 특정한 때를 두지 않고 변주한다.

프롤로그

암전 상태의 무대.

두근, 두근, 두근.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

이윽고 희미한 빛 한줄기가 들어오는 무대.

스포트라이트 조명 아래, 사색이 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손을 뻗고 있는 다운이 보인다.

동시에 놀란 듯, 혹은 다운을 질책하듯 수군거리는 목소리.

다운, 잔뜩 기가 죽은 채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어쩔 줄을 모른다.

다운 (변명하듯 더듬거리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려던 게 아니라.

점점 더 빨라지는 심장 소리.

다운 미, 미안해. 내가, 다시.....

다운의 말을 뒤덮을 것처럼 수군거리는 소리와 심장 소리 점점 더 커진다.

주춤거리며 제자리를 서성거리던 다운, 결국 그 자리에 우뚝 선다.

참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움송그리며 주먹을 꼭 쥐고 눈을 질끈 감는다.

동시에 사위를 가득 채우던 소리들, 사라진다.

다운도망치고 싶어.

탕. 거칠고 큰 철문이 열리는 소리.

놀란 다운이 고개를 번쩍 들면, 무대 암전.

어디선가 어설피기 짝이 없는 리코더 소리가 들려온다.

1장

무대 밝아지면, 어설피게 악기를 연주하며 웃고 있는 강, 건, 율, 희.
객석 한구석에서 눈을 질끈 감고 앉아 있던 다운, 눈을 슬그머니 뜬다.

다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헉!

두리번거리던 다운, 낯선 환경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른다.

다운 악!

잡담을 멈추고 일제히 다운을 향해 고개를 돌린 강, 건, 율, 희.
우르르 다가와 다운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무대 위로 이끈다.

건 어? 새로운 사람.

강 음. 새로운 도망자.

건 요즘은 좀 더 빨라진 것 같지?

희 약간? 여기로 오면 오히려 좋지.

강 암, 좋고 말고.

그때, 무대 한쪽에서 토끼가 손에 든 명부에 무언가 끄적이며 등장.

토끼 (하품이 나오는 것을 참으려 애쓰며) 2024년 8월 30일 오후 2시 13분 33초 55
의 도망자군요. 좋아요.! (결국 참지 못하고) 흐아아암.

다운 도망자? 그게 대체 무슨.....

율 (자연스럽게 말을 끊고) 오, 새로운 도망자!

건 (손을 뻗어 하이파이브 시도하며) 잘 왔어.

다운 (얼결에 하이파이브 하며) 어어?

강 자자, 이쪽으로 올까?

희 여기서 좋겠어.
강 무슨 색이 좋아?

여유들,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운을 앉힌다.
폼에 폭신한 쿠션을 안겨주고, 신비로운 색깔의 음료가 담긴 음료를 건네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운의 주변에 자신들도 앉는다.

다운 (연신 두리번거리며) 대체 누군데… 아니, 그보다… 여긴 대체 어디지?
건 우선 그거 먼저 마시는 게 어때?
희 그래 그래. 한 번 마셔봐.

다운, 마지못해 잔을 입에 갖다 댄다.

다운 (놀라며) 어?
강 어때?
건 무슨 맛이야?
다운 (맛을 음미하며) ……퐁크러쉬?
강 아하, 그걸 좋아하는구나. 그거 맛있지.
건 난 거기서 파는 유니콘 크러쉬도 좋더라.
희 난 제로 아이스티.
강 에이, 아이스티에 샷 추가가 진짜라니까? (다운을 향해) 다운, 아샷추도 좋아해?
다운 난 아샷추는 별로 … 아니, 잠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여유들, 언제 재잘거렸냐는 듯 일제히 토끼를 바라본다.
다운, 덩달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따라간다.
토끼, 다운에게 다가온다.

토끼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했죠?
다운 (놀라며) 어? 그걸… 어떻게.
토끼 여긴 당신과 같은 ‘도망자’들이 머무는, ‘이상한 쉼터’입니다.
다운 이상한, 쉼터?
토끼 네. 도망자들이 나갈 준비가 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쉼터죠. (또 다시 나오려는 하

품을 참아낸다) 시간의 테두리 바깥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동안은 원래 있던 세계의 시간은 멈춰있어요. 그리고 전… (하품) 전 이곳에서 도망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도우미입니다. 모두들 저를 토끼라고 부르니,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여유들을 가리키며) 이 존재들은 이곳 쉼터를 이루는 ‘여유’들입니다. 쉼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기도 하죠.

다운 (혼란스럽다는 듯) 이게 다 무슨 말이지? 혹시 이게 꿈 아니야?

희, 말없이 다운의 볼을 꼬집는다.

다운 (외마디 비명) 악! 아파. 그럼 진짜 꿈이 아니라고? 말도 안돼…….
토끼 (물끄러미 다운을 바라보며) 그만큼 그 순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당신의 염원이 강했다는 뜻이죠. 이상한 쉼터는, 언제나 그런 이들에게 열려 있으니깐요.

다운, 할말을 잃는다.
잠시 사이

강 그래서?
다운 ……응?
건 다운은 어디서 도망쳐 왔어?
다운 어?
희 지금 기분은 좀 어때?
건 아마, 이미 조금 달라졌을텐데.

모든 존재들의 의미심장한 시선이 다운에게 향한다.
얼떨떨한 다운.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웅기가 울컥 샘솟는다.

다운 사실… 얼마 전에 전학을 갔어. 졸업은 한 학기 남았는데, 아빠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헐, 졸업 직전예?) (그거 좀 힘들겠는데.) 응. 전학 간 학교는 아예 다른 지역이라 당연히 아는 애가 아무도 없거든. 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 힘들었어. (진짜 그랬겠다.) 근데 우리반 반장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 (오~ 진짜?) 응. 급식실에서 점심도 같이 먹어주고, 이동 수업 있을 때도 먼저 챙겨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내가 또 바보같이 실수를

해서.

다운, 잠시 말을 멈춘다.

여유들과 토끼, 가만히 기다린다.

다운 미술 시간에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작품을 만드는 수행평가가 있었어. 그때도 반장이 같이 짝이 되어줬어. 그런데 문제는, 작품을 다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작품을 보여주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야. (잠시 사이) 나는… 나는, 그렇게 주목받는 순간이 되면 너무 긴장이 돼. 해야 할 말도 잊어버리고 자꾸만 멍청한 실수를 하거든. 그래도 반장 점수까지 망치면 안되니까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데 모두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발표 내용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야.

종이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다운,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머리를 흔든다.

다운 그래서 바보 같이 허둥대다가 그만… 같이 만든 작품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쳐 버렸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았을텐데. 난 진짜 왜 이럴까.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바뀌지 않아. 이제는 그렇게 누군가 나만 바라보는 순간이 오는 것도 싫고, 거기서 실수할 게 뻔한 나도 싫어.

토끼, 한걸음 가까이 다가간다.

토끼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다운 어?

토끼 지금도 우리가 다운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다운 …….

토끼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운, 그제야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토끼와 여유들을 알아차린다.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은 자신까지도.

토끼 앞으로도 이곳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다운 …….

토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요.

다운, 썩한 눈으로도 밝게 웃고 있는 토끼를 멍하니 바라본다.

서서히 암전

2장

무대 밝아지면, 여유들에게 핸드비트를 배우고 있는 다운.
거듭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모습.

다운 (소리내어 웃으며) 이거 진짜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토끼 (하품을 하다 비틀거리며) 어이쿠, 이런. 원래 여유들이 유연하거든요.
건 (우쭐대며) 그래, 우린 프로라고.
희 (스트레칭을 하다) 이런 유연함을 말하는 건 아니야. 알지?
다운 (조용히 감탄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 응.
강 괜찮아. 너도 계속 연습하면 유연해질 거야.
희 맞아.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좋아보여, 다운.
다운 정말 그래. 솔직히, 그럴 수 있다면 계속 있고 싶을 정도로.

그러자 여유들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강 그럴 수는 없는 걸.
다운 (실망하지만 애써 감추며) 알지, 알아. 그럴 수 없다는 거.
토끼 (묘한 표정으로) 이해해요, 그 마음.
다운 정말?
토끼 (화들짝 놀라며) 네? 네, 뭐... (졸린 눈을 비비며) 아, 이제 슬슬 다른 도망자들을 만나실 수도 있겠군요.
다운 여기 다른 사람들도 있어?
토끼 그럼요. 마침 지금 있는 도망자들은 모두 다운과 비슷한 나이대네요.
다운 정말?

토끼, 하품을 찍하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는 먼 곳으로 시선을 던져 유심히 지켜보는가 싶더니, 귀를 쫑긋 세워 듣는다.

토끼 마침 저기 한 명이 오는군요.

객석 한쪽에서 운동 경기 중계 방송 소리가 들린다.
멍하니 앉아 있던 다운, 고개를 들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린다.

현조,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대에 등장.

현조 (토끼를 보며) 어, 토끼!

현조, 핸드폰을 끄고 성큼성큼 다가온다.

현조 토끼야, 난 대체 언제쯤 돌아갈 수 있어?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토끼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고는,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갈 때가 되면,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게 될 거예요.
현조 (답답하다는 듯) 이유가 뭐지? 아,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진짜.

현조, 제자리를 서성거린다.

그런 모습을 심각하게 지켜보는가 싶던 토끼, 불안간 쏟아지는 줄음을 견딜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마구 흔든다.

다운 토끼야, 너 괜찮은 거야? 엄청 피곤해보여.

토끼 아, 전 늘 이래서 괜찮아요. 아무리 자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서. 하암... 우선, 저도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려 갈게요.

토끼, 비척거리며 퇴장. 강과 희, 그 뒤를 따른다.

다운, 건과 울, 그런 토끼를 걱정스레 바라본다.

현조, 문득 다운을 발견한다.

현조 어, 새로운 도망자야? (손을 흔들며) 안녕!

다운 (덩달아 손을 흔들며) 어어, 안녕.

강 현조, 이쪽은 다운이야. 풍크러쉬를 좋아하는.

희 근데 아샷추는 별로 안 좋아한대.

현조 예, 진짜? 훈련하고 그거 마시면 완전 짱인데!

다운,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현조의 차림새를 조심스럽게 훑어본다.

현조, 그 시선을 알아차린다.

현조 (보란 듯이 유니폼을 보여주며) 어때, 우리팀 유니폼? 이번에 중요한 시합 나가기 전에 새로 맞춘 건데. 이거 처음 받은 날, 진짜 신났거든. 이 시원한 색깔을 보니까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운 (궁금하다는 듯) 무슨 운동을 하는데?

건, 바닥에 있던 공을 주워 현조에게 건네면

현조, 공을 받아든다.

현조 축구(핸드볼). 난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야.

건 현조가 팀 주장이래.

강 진짜 대단하지?

다운 (감탄하며) 와... 대단하다.

자랑스레 유니폼을 보여주던 현조, 다시 핸드폰을 꺼내 다운에게 보인다.

훈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현조 쉼터에서 나가면 동료들이랑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이걸 적용한 훈련을 꼭 해보고 싶은데. 아마... 이번 시합 때는 어렵겠지만.

다운 어째서?

현조, 말없이 자신의 한쪽 무릎을 가리킨다.

현조 내가 큰 부상을 당해서, 이번 시합에는 아예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거든. 사실 이상한 쉼터에 온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

다운 (놀라며) 정말?

현조 응. 원래도 무릎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청소년 올림픽 앞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합이라 몇 주 동안 열심히 훈련했거든. 그런데 그것 때문인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 병원에 가니까 이번에 수술하지 않으면 운동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평생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출전도 못하게 됐어. 그래서...

현조, 고개를 떨군다.

잠시 사이

현조 (애써 웃으며) 여기가 시간이 멈추는 곳이라서 진짜 다행이지? 적어도 바깥의 시간은 흐르지 않으니까. 출전을 못하게 됐을 땐 물론 그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쉼터에 왔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가서 수술이든 재활이든 받아야 다시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최고가 되려면 이렇게 멈춰 있을 수만은 없어.

다운 (현조를 바라보며) 축구(핸드볼)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현조 (망설임 없이) 응, 물론이지. (답답한 듯) 하지만, 내가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왜일까? 난 정말로 돌아가야 하는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다운, 결심한 듯 고개를 든다.

다운 괜찮다면, 나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현조 네가? (깨달은 듯) 아! 너도 돌아가고 싶구나. 그치?

다운, 움찔하며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다운응.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현조 (웃으며) 뭐야, 그 대답은. 어쨌든 고마워. 그럼 우리 다른 도망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보자. 어쩌면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다운 그래, 좋아.

다운과 현조 그리고 여유들 모두 퇴장하면, 서서히 암전.

3장

무대, 밝아지면 저마다 자유롭게 쉬고 있는 온주, 서진, 도원과 건, 희.

서진, 기타(악보집)를 옆에 두고 앉아 있는 온주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서진 저기 있잖아. (기타(악보집)을 가리키며) 그거... 연주할 수 있는 거지?

온주 (서진을 한번 쓱 보고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응.

서진 (반색하며) 와, 진짜? 그럼 혹시 보여줄 수 있어?

떨어져 있던 여유들까지도 기대하며 다가온다.

온주,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챘는다.

서진 (실망한 기색) 그래? 항상 들고 다니길래 정말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온주, 뜨끔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없이 기타(악보집)만 바라본다.

도원,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다 읽고 있던 책을 덮는다.

도원 약기든 뭐든 취미는 할 수 있을 때 해뉘라~ 고3 되면 그마저도 못하니까.

온주, 취미라는 말에 반응한다.

온주 (발끈해서) 이거 취미 아니거든요.

도원 그럼? 전공을 하려고?

온주 (주춤거리며) 그건…….

도원 전공 할 거면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걸. 학원은 다니고 있어?

온주 (중얼거리듯) 전공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도원 고1이랬나? 우리반에 예체능 하는 애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진짜 일찍 시작해야 하는 모양이더라. 실기 때문에 고생하던데. 하긴 요즘은 뭐든 어렵지만, 예술로 성공하기는 더 어려우니까. 혹시 그래서 대입도 어려운 건가?

온주, 점점 더 말이 없어진다.

서진 (온주의 눈치를 살피며) 에이,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더 멋져보이던데!

도원 (가르치듯) 멋져보이는 거랑 현실은 다르단다. 나도 중학생 땐 몰랐어.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성공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온주 (벌떡 일어나며) 저도 알아요.

도원과 서진, 온주를 바라본다.

그때 무대 한쪽에서 등장하던 다원과 현조, 영겹결에 한쪽에 몸을 숨긴다.

온주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요. 저도 안다고요. 그냥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되니까. 성공할 수 있을만큼 재능도 운도 있어야 하니까. 그치만, 그래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좋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서진 (조심스레)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심터에 와서는 한 번도 연주하지 않았어?

잠시 사이

온주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어찌고 싶은지. 연주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도원 왜 모르겠는데?

온주 (망설이다) 저희 형(언니)도 그랬을 것 같아서요.

서진 형(언니)?

온주 내 사촌 형(언니)도 나랑 똑같이 기타(피아노)를 쳤거든. 나랑 10살 넘게 차이 나서 그 덕에 나도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 (기타(악보집)을 꺼내놓으며) 이것도 형(언니)이 준 거야.

잠시 망설이던 온주, 고민 끝에 연주를 시작한다.

행복과 해방감으로 가득한 연주에 모두들 리듬을 타고 악기를 두드리며 즐긴다.

도원 너 독학했다고 하지 않았어? 잘 모르지만, 꽤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은주 글썄요. 다들 저만큼은 하지 않을까요.
서진 에이, 아닐걸? 누가 이만큼을 하겠어.

은주, 대답 대신 기타(악보집)을 만지작거린다.

은주 형(언니)도 그랬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홍대에서 버스킹을 했는데, 그게 엄청 유명했어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가 재작년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형(언니)이 여전히 음악을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래오래 이걸 하고 싶었는데.

서진 그럼 하면 안돼?

은주 이제는 취미가 아니라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을 했지. 근데 허락을 못 받았어. 그걸 못 견디고 집에서 뛰쳐 나왔는데. (가출을 했어?) 아, 아니, 그렇다기 보단... 정확히는 형(언니) 집에 무작정 찾아갔지. 그런데 2년 만에 만난 형(언니)은 이미 음악을 접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

도원 (놀라서) 뭐?

서진 진짜로?

은주 (숨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성공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래서 직업으로서 음악을 하는 걸 포기했대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막 무서워지더라고요. (어떤 게?) 그냥, 모든 게. 나는 음악이 정말 좋아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형(언니)처럼 포기하게 된다면, 나는 그걸 참을 수 있을까?

사이

도원 쉼터에 온 뒤로는 좀 어때?

은주 좋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아마 밖에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이대로 있는 게 맞는지 하는 생 각은 들어요. 포기를 하든 말든, 결국 선택을 해야 하나니까.

숨어있던 현조, 무어라 말하려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바로 그 순간, 강이 뛰어서 등장.

강 큰일이야!

희 토끼가 쓰러졌어!

은주 뭐?

서진 어떡해!

도원 어쩐지 위태위태하다 했어. 지금 어디에 있는데?

현조와 다운, 모여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모두가 돌아본다.

도원 (두 사람을 발견하고) 현조? 그리고... 네가 바로 새로운 도망자구나. 여유들에게 들어어.

다운 (약간 쭈뼛거리며) 네. 안녕하세요.

현조 토끼가 쓰러졌다고?

은주 계속 졸리고 피곤해 하던 게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서진 토끼는 도우미잖아. 도우미 일이 힘들었나?

도원 혼자 하는 거면 힘들었을 수도 있지.

강 (심각한 어조로) 토끼가 잠든 건, 이상한 쉼터의 부작용 때문이야.

은주 부작용이라고?

도원 쉼터에 부작용이 있었어?

현조 그게 대체 뭔데?

다운 혹시... 계속 졸리고 피곤한 게 부작용이야?

희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돌아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긴 시간 쉼터에 있게 되면... 어찌면 끝없는 잠에 빠질 수도 있어.

좌중이 충격으로 침묵한다.

잠시 사이

다운 그럼... 계속 머무르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뜻이야?

현조 다운이 너... 혹시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

다운 (망설이다) 응.

4장

도원 (물끄러미 다운을 바라보며) 침터에 있으면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니까, 그럴만도 해.

온주 일단, 토끼한테 가보는 게 어때?

현조 그래, 그렇게 하자.

도망자와 여유들, 모두 퇴장.

뒤늦게 일행을 쫓아가던 서진,
한구석에 표지가 펼쳐진 채로 떨어진 토끼의 명부를 발견한다.

서진 이거, 토끼가 들고 다니던 거잖아?

무심코 주우려다 명부의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발견한다.

서진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이건... 이름 같은데. 지워진 건가?

페이지에서 지워진 이름을 읽으려 애쓰던 서진이 고개를 번쩍 든다.

서진 설마, 토끼도?

서진, 재빨리 명부를 들고 퇴장.

서서히 압전.

무대 밝아지면, 토끼의 집 앞.

서진을 제외한 도망자들이 모여있다.

현조 토끼...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도 깨어나지 않던데.

온주 당연히 깨어날 거야. 그래야지.

다운 어떻게 깨워야 하지?

도원 억지로 깨워서 안 될 거야. 그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

그때, 무대 한쪽에서 달려오는 서진.

서진 저기, 이것 좀 보세요!

서진, 가지고 있던 명부를 보인다.

도원 (놀라며) 이거... 토끼가 들고 다니던 거 아니야?

온주 맞아. 이거 어디서 났어?

현조 이거 우리가 읽어도 되는 건가?

서진 (당황하며) 어? 어, 그게. 그냥 나는, 여기 오던 길에 떨어져 있길래. 근데 마침 첫 페이지가 펼쳐져 있어서. 내가 보려던 건 아니고.

서진,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친다.

다운, 그런 서진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

다운 응, 아마 토끼가 쓰러지면서 떨어뜨렸나봐. 그치?

서진 (멍하니) 응? 응.....

도원 첫 페이지에 뭐가 있었어?

서진 어, 네. 맞아요.

5장

도원, 명부의 첫 페이지를 펼친다.

다운, 종이 위 문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서진 (지워진 이름을 가리키며) 여기 이름이 이렇게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절대 돌아가지 않아]라고 적은 것도 토끼 글씨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토끼도… 도망자가 아닐까요?

도원 (곰곰이 생각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컴퓨터의 부작용도 이해가 되네.

일제히 도원을 돌아본다.

도원 첫 페이지에 적힐 정도면 오래 도망자로 있었다는 거잖아. 회피가 길어지면, 몸과 마음도 현실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법이거든. 그래서 자꾸 잠이 오는 거야.

온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도원 (덤덤하게)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잘 알아.

잠시 사이

도원 아무튼, 이번에는 우리가 토끼를 도와주자. 내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토끼가 도와준 덕분인 걸. 우리 모두 한 번씩은 토끼에게 빚을 졌잖아.

서진 하긴, 맞아요. 사실 저도 컴퓨터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많이 울어서… 토끼가 한참이나 옆에서 위로해줬어요. 오해받는 일은 늘 괴로운 일이라고, 그 마음을 잘 안다고도 해줬어요.

현조 맞는 말이야. 난 처음에 여기서도 훈련을 해보겠다고 하는 바람에… 토끼가 날 말려줬어. 아무리 시간이 멈춰 있어도 다친 게 사라지진 않으니까 조금해하지 말라고.

서진 그럼 일단 여유들에게 한 번 물어봐야… (주위를 둘러보다) 어? 어디갔지?

다운 여유들이… 모두 없어졌어.

도망자들, 여유들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유들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려던 바로 그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주위가 어두워진다.

도망자들,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진다.

어두컴컴한 쉼터.

현조와 온주, 주위를 둘러보며 달려온다.

온주 헉, 헉… 좀만, 좀만 쉬다 가자.

현조 벌써? 그래, 그럼 여기 잠깐 앉자.

두 사람, 무대 한쪽에 털썩 앉는다.

잠시 숨을 고르던 온주,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발견한다.

온주 이걸 언제 들고 있었지?

현조 그 정신에 잘도 챙겼다, 너.

온주 (호기심에 슬쩍 장부를 펼치다 놀라며) 도망자 중에 어른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현조 (역시 호기심에 목을 빼고 장부를 들여다보다) 어른들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나 보다.

온주, 무심코 장부를 뒤적이다. 우뚝 손을 멈춘다.

현조 왜 그래?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

온주 (굳어진 표정) 응.

현조 뭣? 누군데?

온주 (장부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우리 형(언니)…….

현조 어?

온주 2년 전… 이라고.

현조, 얼이 빠진 채 이름을 들여다보는 온주를 가만히 바라본다.

현조 너희 형(언니)도 쉼터에서 여유를 찾았나보다.

잠시 사이

현조 우리 감독님이 요즘 나한테 자주 해주시는 말이 있는데.
온주 (현조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현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지 말자, 이 말이야.
온주 …….
현조 난 이번에 돌아가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언제쯤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지, 한다면 또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몰라.
온주 그런데도… 괜찮아?
현조 어쨌든 지금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나중에 프로 선수를 못하고, 또 이걸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볼 거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니까.
온주 어째서? 포기하게 되면… 힘들잖아.
현조 야, 언제 포기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일단 해야지. 그거 걱정해서 지금 포기하면 후회 안 할 것 같아? 쉼터에 온 것도 그거 때문이잖아, 너.
온주 (말문이 막힌다)
현조 그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해. 당장 포기하기 싫을 만큼 좋다면. 나도 그럴 거야. 대신… 지금보다는 더 여유를 가져야겠어.
온주 여유를?
현조 응.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했나봐. 조급함을 버리지 못해서.

잠시 사이

그 순간, 다시 지대가 무너지는 듯한 우렁우렁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현조 (비명) 악! 또 왜 이래!
온주 설마 쉼터가 무너지고 있는 건가?
현조 뭐? 안돼! 나 돌아가야 하는데!

서진, 도원 무대 위에 등장.

도원 여기 있었어? 아무래도 이곳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는데…

현조 안전한 곳이 있긴 한 거야?
서진 우선 다운 언니(오빠)랑 토끼를 찾아야 해요.
온주 좋아, 가자!

네 사람, 퇴장. 서서히 암전.

6장

어두운 토끼의 방. 무너질 듯 불안한 소리가 들린다.

토끼, 방 한구석에 잠들어 있다.

토끼 (악몽을 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헉…!

깨어난 토끼, 벌떡 일어나 침터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불안정한 침터의 상태를 확인한다.

바로 그때, 무대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다운 등장.

토끼 (패닉) 아, 안돼. 무너지면 안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설마, 여유들도 사라졌어? 이럴 수가… 내가 이곳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토끼, 맞은편에 선 다운 발견한다.

다운, 우뚝 선 채 토끼를 응시한다.

토끼 다운…….

다운 우리 같은 도망자가 아니라, 이 침터를 만든 거였어?

토끼 (변명하듯) 이,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지마…! 난 그냥, 그냥 누구든 도망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야.

다운, 토끼에게 다가온다.

토끼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그냥, 그것 뿐이야. 내가 바란 건 그거 하나야. 정말이야…….

다운 너도 우리처럼 도망치고 싶었어?

토끼, 대답을 하지 못한다.

다운, 그런 토끼를 묵묵히 기다린다. 자신에게 그래주었듯이.

토끼 ……아무도 물어보지 않잖아.

다운 뭐를?

토끼 다들 도망치는 게 나약하고 이상하다고만 하지, 아무도 왜 도망치고 싶은지는 물어보지 않잖아.

다운 (조금 놀라서) 맞아.

토끼 그래서 침터를 만든 거야. 나는 도망자들이 누구든 자신에게 이유를 물어주길 바란다는 걸 잘 아니까. 나같은 도망자들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여길 잘 유지하는 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잘 모르겠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결국 이렇게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내가 다 망친 거야.

다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토끼, 고개를 들고 다운을 바라본다.

다운 이곳으로 도망쳐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런 나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토끼 (놀란 눈으로 다운을 바라본다)

바로 그때, 도망자들 등장.

온주 (명부를 들어보이며) 내가 만든 침터를 거쳐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현조 그래, 뭘 망쳤다는 거야.

도원 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서진 고마워, 토끼야! 침터를 만들어줘서.

온주 토끼야, 여기.

온주, 토끼에게 명부를 내민다.

토끼, 명부를 받아 조심스레 첫 페이지를 펼쳐 자신이 써놓은 페이지를 들여다본다.

서진 (토끼가 펼친 페이지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근데 토끼야, 여기 지워진 자리는 혹시… 네 이름이야?

토끼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근데… 지워졌어.

다운 (의아한 듯) 토끼 네가 지운 게 아니야?

토끼 응. 그냥… 언젠가부터 흐릿해졌어. 그러더니 계속…… 어?

토끼,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란다.

온주 왜? 무슨 일이야?

현조 원데, 원데?

도망자들, 일제히 명부를 들여다본다.

명부 위로 흐릿하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서진 (놀라서) 어? 이름이…!

다운 이게… 토끼 네 이름이었구나.

토끼, 멍하니 이름을 바라보다 도망자들을 바라본다.

무언가 무너지던 소리는 어느새 완전히 멈춰있다.

모두들 안도한다.

다운 토끼야,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토끼 (다운을 바라보다)

현조 그리고 우리도 꽤 잘 들어줄 수 있어. 아, 너만 괜찮으면!

도원 그래, 맞아. 기다릴게.

서진 너도 우리에게 그래줬잖아.

어디선가 리코더 소리가 들려온다.

모두가 처음 컴퓨터 오던 그 순간처럼 어설픈기 짝이 없는, 그렇지만 웃음이 절로 나오는.

무대와 객석 곳곳에서 나타난 여유들이 리듬악기를 두드리며 어둑하던 공간을 밝히기 시작한다.

모두들 탄성을 지르며 공간 곳곳을 누비고 달린다.

조만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 그리고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저마다의 속도로 공간을 채우는 도망자들의 모습을 둘러보던 토끼,

문득 관객을 보며 환하게 웃는다.

거칠고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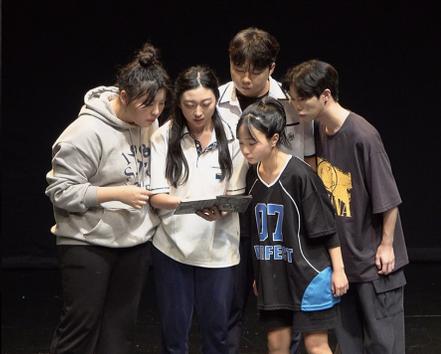
디자인 자료



2024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31



32 2024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2024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33

34 2024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이सान 아티스트의 도망자

대본집

주최·주관 안산문화재단

발행처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발행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

총괄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책임 지역문화부장 황우자

기획운영 김민정

작 연출 송현진

조연출 송윤아

기획 김재이

조명디자인 감독 현주용

음향감독 강수룡

무대감독 김지호

무대디자인 김윤지

음향디자인 강재영

출연 <2024 안산 청소년 극단 고등어>

고상원 권은서 김버리

김아린 박수민 박지영

송호연 신우솔 신현호

양진혁 우하정 이태은

이효서 정혜윤 조연수

본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작품 이용 시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2

이सान 아티스트의 도망자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